

크라운상표의 조선맥주

도움말 : 김 영 기	조선맥주 · 경리부장
글 : 이 두 홍	홍보 2 과 장

4만8천여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세워진 공장전체가 푸른 나무와 녹지로 둘러싸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공장 크라운의 이미지를 더욱 신선하게 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맥주공장의 방재설비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오늘의 크라운맥주가 있기까지 반세기동안의 역정(歷程)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았다.

한국최초의 맥주공장

지난 1933년 일제 치하에서 설립된 조선맥주영등포공장은 바로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를 대변 해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소 늦은감이 없지않으나 지난 73년에는 영등포공장, 같은 부지안에 동양최대의 맥아공장을 새로 준공하였으며 81년에는 한때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마산의 한독맥주를 인수하여 조선맥주 마산공장으로 가동시키는등 사세를 착실하게 신장시켜 왔다.

현대화된 시설

조선맥주 영등포공장은 연 1만3천여평의 건물에 서독과 미국의 최신 기계설비와 자동생산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현재 이공장에서는 연간 1천8백만케이스의 맥주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또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열처리에 의한 장기보존 맥주



「크라운생」을 내놓는 등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화, 근면, 책임을 중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주력기업의 발전에 따라 다른 업종에도 눈을 돌려 기업확장을 서두르는데 비해 조선맥주만은 오직 좋은 맥주생산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그야말로 보기 드문 기업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인화, 근면, 책임이 특히 강조되고 창의력과 성실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의 간단없는 노력이 결국 오늘날의 조선맥주를 있게 한 성장의 저력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영기 경리부장(3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희 조선맥주의 모든 공장은 방화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잘 갖추어진 소방시설과 함께 종업원들의 방화에 대한 인식이 평소에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공장건물은 일제때 건축한 것으로 그 구조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사장님 이하 경영진에서 보험에 대해 깊은 배려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물론이러니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생명보험까지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맥주는 모든 공장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거의 완벽하게 해 놓고 있다.

영등포공장만 하더라도 보험금액 약 52억원에 연간 보험료가 1천4백60만원에 이르며 마산공장은 보험금액 77억원에 연간 1천1백70만원의 보험료를 붙이고 있다.

현행 보험요율과 보험가액쪽으로 얘기가 미치지 김부장은,

「경영진에서는 보험요율과 보험가액에 대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율에 대해서는 방화시설이 잘 되어있고 물을 주로 사용하는 맥주공장이므로 화재위험이 비교적 적는데 비하여 다소 높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화재보험협회와 특수건물화재보험에 대한 평소의 느낌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던져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험에 관한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는 보험을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결코 나에게서는 피해가 안올것이라는 편한 생각을 먼저하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모든 특수건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공장역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대해 인식을 잘 못한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모든 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만 취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화재보험요율자체가 재무부에서 인가된 단일요율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 보험회사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계약권유를 받는다는 것이 더 불편하고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부장은 차분하게 다음을 이야기했다.

「직접 보험을 취급하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화재보험협회가 계속해서 풀제에 의한 보험모집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면에서 볼때도 그러하지만 당국이나 각 보험회사에도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쪽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보험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우선 많이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보험약관을 계약자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항은 분명하게 정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보험을 모집하는 직원들의 자질이 더욱 향상되어 모든 계약자들이 일선 영업직원들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보험 요율 역시 저희 공장처럼 화재위험이 적은 물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요율이 적용되도록 조정,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취급해 온 실무책임자가 이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우리 보험인들은 다시한번 그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약관과 제도의 정비 문제는 그것이 어제 오늘에 비롯된 과제가 아니라란 점에서 더욱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